

22. 참 예배의 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들이 예배를 못드린다고 문제가 많았다. 정부에서는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부분의 교회에서 따랐는데 몇몇 교회에서는 예배를 강행했다. “코로나 따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못하면 되겠느냐?”며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코로나를 이겨야 된다고 했던 것이다. 오늘은 참 예배의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기가 노력한 수고의 소산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지고 왔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분해서 아벨을 죽였다. 인간 최초의 예배가 이렇게 비극적인 예배가 된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장 신성한 문제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유행해도 기어코 드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예배가 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것은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먹은 사람으로 자식을 낳았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지만 가인과 아벨은 선악과를 먹고 낳은 아들이다. 생리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 낳았겠지만 실제로는 선악과를 먹고 낳은 아들이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낳은 가인과 아벨도 역시 선악과를 먹고 있는 사람이니까 결국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다고 봐야 한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을 드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이 예배다. 내가 노력한 것을 가지고 가면 예배가 안되는 것이다. 받은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방법을 써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된 것이다.

자기가 노력한 것은 자기 의다. 세상에 살 때는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겠는가? 세상에 살 때는 노력해서 살아야 한다. 가만히 있는데 밥을 주겠는가? 밥 먹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한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는 최대의 감사고 영

광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는가! 어떻게 흠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는가!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위임을 주셨는가. 이것이 감사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무엇을 만들어 간다고 되겠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필요로 하시겠는가? 양이 필요하겠는가, 곡식이 필요하겠는가? 그것은 표시에 불과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자기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더구나 사람은 가장 큰 축복을 받았으니까 가장 큰 감사를 돌려드려야 한다. 그것이 예배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같은 것은 예배라고 할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간다면 그것을 자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식을 할 수 없다 해서 예배를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우리도 안식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예배다. 사람들은 자기 의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생각한다. 좋은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찬양이라야 되지 우리의 의에 대한 보답이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가 실패했다. 이것이 첫 번째 종교의 실패다.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이 문제가 지금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100% 만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는 감사하지만 일부는 감사하지 못하면 예배가 안된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으니 너희도 안식하라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고 심히 만족했으니까 너희도 나의 만족에 참여하라.”는 것이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충분히 은혜를 베풀었으면 받은 사람도 ‘넘치게 받았구나.’라고 생각해야 서로 행복하지, 주는 사람은 넘치게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받은 사람은 ‘왜 이것밖에 안되는가.’ 하면 준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고 받은 사람도 감사가 안된다. 우리가 참으로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안 것만으로도 큰 감사가 되고 내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랜 시간동안 하나님이 계신지 몰라서 방황했다. 그러다 ‘내 위에 누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위에, 내 앞서 누가 있다고 알았을 때 내 인생이 정리되었다. 생각이 싹 정리되었다. 그 후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지금도 똑같다. 그리고 그 감사의 발전이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한다 해도 다른 것이 아니다. 그 한 가지, 창세기 1장 1절의 발전이다. 성경을 다 보지 못한 사람도 있고 천 번을 읽은 사람도 있는데 천 번을 읽으나 다 못읽으나 간에 알고 보면 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한 구절이다. 나를 지으셨다는 것이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 주신 것을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했다.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는 말이 그것이다. 머리털 하나라도 부모가 주신 것이니 칼을 댈 수 없다며 깎지 않았던 것이다. 그만큼 부모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고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부모가 하라는 대로 했던 것이다. 자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 결혼도 하라면 보지도 않고 했다. 부모의 것이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니까, 자기보다 못한 부모도 있으니까 그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더구나 민주화시대에 ‘나도 인권이 있는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근본 정신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옳다.

나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하라는 것을 거부해 보지 못했다. 내 마음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 해야 했는데 나는 그것이 후회되지 않는다. 그때 만일 내 고집대로 했으면 후회할 것이다. 내가 우겼으면 내 고집대로 할 수 있었고 그것은 내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이기도 했으니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나는 몰랐지만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다.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내 마음대로 한다고 잘된다고 볼 수 없다. 잘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 나에게 달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버님의 뜻을 거역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럴 생각도 못하고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했다. ‘이래서 안됐구나. 아버지 때문에 잘못되었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 보니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께 오기 위한 길이었다. 그렇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과 살고 있지 않을 것이고 벌써 죽었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예배당에 모여서 의식을 행하고, 찬양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다 되게 하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잘못될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질서가 없어지게 된다는 말이다. 옛날에는 이것을 율법적으로, 법리적으로

했지만 순리적으로 해도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순리가 된다면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아질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면 세상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험해진다. 이번에 어떤 놈이 돈 때문에 자기 노모를 죽였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 아들까지도 죽였다고 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서 잘되는 것이 있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세상이 그렇기 때문이다.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세상에도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는 하늘로부터 와야 되지 사람이 만들려고 하면 안된다. 억지로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항하는 것이다. 권위에 반항하고 민주화한다며 반항하는 이유가 억지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의 질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권위를 아는 것이다. 권위를 모르고는 백날 하나님을 알아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권위다. 우리 인생의 권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엇을 믿는가? 병 고쳐 준다고 믿는 것은 자기 소원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잘못 가르쳐 놓았기 때문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병 고칠 일이 있으면 병원에 가지 뭐하러 하나님 보고 고쳐달라고 하겠는가. 먹고 사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면 사람들이 다 교회에서 떠나버릴 것이다. 유럽의 교회들이 비어가는 이유가 그것이다. 필요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게 되었다고 한다. “우리가 다 하니까 하나님은 쉬세요.” 하며 하나님 보고 쉬라고 하는 중이다.

가인과 아벨의 일, 이것은 예배의 길인데 첫 번째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는 지금도 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지금 예배를 보면 자기 의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도 안드리는 것보다 낫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예배가 되든 안되든 둘 중에 하나지 안드리는 것보다 나은 예배는 없다.

가인의 후손들은 문화로 빠져나갔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들 셋을 낳았는데 하나는 농사를 짓고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고 하나는 통소를 잡고 노래하는 자가 되었고 하나는 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세상 문화의 핵심을 말한 것이다. 세 아들들이 생업과 예술과 기계로 빠져나갔다는 것이다.

참된 예배가 안되면 문화가 되어 버린다. 문화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다. 이런 문

화가 된다는 말이다. 문화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인데 결국은 문화 때문에 망한다. 인류가 멸망할 때 문화로 인해서 망할 것이다. 다르게는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셋과 에노스를 다시 주셨다. 그리고 그 후손이 십 대를 지나서 노아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시대의 상황을 아주 특이하게 표현해 놓았다. 노아 이전의 시대는 장수족의 시대로 몇 백 년씩 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다. 창세기 5장에는 살고 자식을 낳고 죽었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창세기 6장에 가면 아주 특이한 일이 생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셨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다.

거기서 난 것이 네피림이다. 영어로 자이언트(giant)라고 번역된 거인족이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신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뱀의 꾀임에 빠져 인간이 소망하던 그대로 된 것이다.

신과 결합하면 신보다 더 낫다. 신은 신일뿐이고 사람은 사람일뿐이지만 신이 사람과 결합하면 신보다 더 나아진다.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간단하게 말했지만 이 말은 세상의 유명한 것을 말한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든지 다 유명해지려고 한다. 입신양명을 원한다. 자기 이름을 날리고 남기려고 한다. 동산을 하다 보면 산에 이름을 새겨놓았다. 입신양명을 못하니까 대신 바위에 자기 이름을 새겨놓고 오래도록 가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소원이 그렇다. 부모는 자식이 입신양명하기를 바라고 자기는 굶주리면서도 공부를 시켰다. 사람의 소원은 오래 살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소원이다.

동산을 나온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 동산에 있으면 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못산다. 형상으로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하고 흠으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증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기름 부음이 그것이다. 기름 부음은 위임이다. 기름은 위임식에 쓰는 것이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특수한 일을 해야 하므로 기름을 부었고 임금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다스려야 하므로 기름을 부어서 위임했던 것이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소원은 네피림이 되는 것이다. 네피림은 구조적으로 보면 신인 합일이다. 사람과 하나님이 합해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의미한다. 천사들이 사람들과 결합했다는 것이다. 천사 + 사람이니까 대단하다. 하나님보다 낫다. 하나님은 육신이 없는데 네피림은 육신도 있고 신도 있으니까 하나님도 무섭지 않다.

시골에서는 밤에 으스스한 데 가면 무섭다. 나는 바닷가에 살아서 바다에는 그런 귀신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밤에 바다 낚시를 하고 있으면 옆으로 도깨비 배가 지나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사람은 몸이 있고 귀신은 몸이 없는데 뭐가 무섭겠느냐.”라고 하셨다. 어려서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렇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귀신은 몸도 없는데 뭐가 무서워.’라는 생각을 하니 밤에 다녀도 무섭지 않았다. 귀신이나 도깨비가 나와도 그것은 몸도 없는 것인데 나는 몸이 있다고 생각하니 아무 마음이 편했다. 사람이 신과 합해진다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셨다. 성경에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이다. 사람은 다 육체를 가졌지만 네피림 같은 것을 보고 육체라고 한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책망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완전히 저주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 가르칠 수도 없고 깨닫게 할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하나님 보다 나은데 하나님 말을 듣겠는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 보다 나은 사람, 초능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 신인합일을 한 사람, 네피림, 용사요 유명한 사람이다. 유명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듣는다. 자기가 더 똑똑하고 더 많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겠는가. 안듣는다. 그런 사람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시골 교회 전도사는 밀리고 밀려서 거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시하다고 무시한다. 괜찮은 사람이 전도사나 목사로 오면 교회에 가지만 시시한 사람이 오면 교회에 안간다. 자기도 그렇게 될 것 같기 때문이다. 내가 살던 시골 교회도 그런 형편이었다. 그러니 동네에서 시시한 사람이나 교회에 왔지 괜찮다는 사람은 안왔다. 한 번은 상당히 똑똑한 전도사님이 왔는데 인물도 좋고 아는 것도 많고 영어도 잘했다. 그러니까 모이는 사람들이 생겼다. 영어강습회를 하기도 하니 사람들이 달리 생각했던 것이다. 6.25 직후에는 지서 주임이 교회를 다녀서 청년들이 왔었는데 평범한 전도사가 오니까 다 떨어져 나갔다. 그래서 요즘 교회 목사들도 박사 학위를 받으려고 난리다. 오죽 하면 가짜 박사가 나오겠는가. 여기서 논문만 써서 제출하면 박사

학위를 주는 학교가 미국에 있다. 그런 학위라도 목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하려고 하겠는가.

네페림이 되면 천하통일이다. 어디를 가도 대우받는다. 교황이 오면 온 국민이 나서서 환영한다. 사람들은 다 네페림을 존경하고 따르려고 한다. 자기도 네페림이 되고 싶기 때문이다. 시시한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참 사람답게 살겠다는 사람은 없다. 할 수만 있다면 네페림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창조자가 피조물을 보고 후회하면 끝이다. 부모가 자식을 보고 “내가 저것을 낳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왜 저것을 낳았단고.” 하면 끝이다. 부모의 입장에서 오죽하면 그런 소리가 나오겠는가.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는가. 오죽하면 ‘내가 왜 저것을 낳았단가!’라고 생각하겠는가. 세상에서 볼 때는 네페림이 굉장히 위대하고 좋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식이 네페림이 되었다고 하면 기가 살아서 자랑하겠지만 하나님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네페림의 세계와 노아의 세계, 두 세계가 갈라졌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제사는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었다. 무엇이든지 오래 되면 형식화되게 마련이다. 규격화되고 형식화되고 객관화되게 마련이다. 성전이 그대로 있으니까 형식은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고 의식만 지키면 되니까 감사가 없어도 의식만 지켰던 것이다. 의식화되면 자기 인생에 감사가 없어도 의식만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세 가지 종류의 예배가 생겼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즉 자기 의로 드리는 예배가 있었다. 그 다음에는 네페림의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사람을 없애야겠다고 하셨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예배가 있다. 시작은 좋았지만 형식화되고 의식화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겠는가.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그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예수 앞에 선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다. 강대국이 침략해서 쓸만한 사람은 포로로 잡아가서 부려먹고 쓸모없는 사람들은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들이 남아서 혼혈이 되어 버린 것이다.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번성해 있었다. 그래서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지 않았다. 자기들을 멸시하니까 가지 않았을 것이고 예루살렘에서는 그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그리심산 성전 터는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제단을 쌓았던 자리라는 전설에 따라서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할 성전을 지은 것이다.

예수 앞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물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까? 당신들은 예배할 데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우리는 조상 때부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옳습니까?”라는 질문이 나온 것이다. 이 질문은 인류를 대표하는 귀중한 질문이다. 예수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실재로 예배하느니라.”

이에 여자는 너무나 감동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다. 우리가 볼 때는 별로 감동스러운 일이 아닌 것 같지만 사마리아 사람의 입장에서 유대인이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오로지 아들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는가. 다 알아들었을까마는 그래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했던 것이다.

아들로 예배가 된다. 아들의 예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아들이 곧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아들’은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뜻이다. 같은 생명이라는 말이고 더 나가면 형상으로서 예배가 된다는 말이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나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졌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형상과 모양이 될 때 하나님께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형상과 모양이다. 하나님은 소고기나 양고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형상화할 수 있는 인간이 필요하다. 내가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내 대신 볼 수 있는 눈이 되어 주는 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내가 손이 없는데 누가 팔을 하나 기증해 주면 얼마나 감동되는 일이겠는가.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오는데 내 마음을 그대로 알고 내 대신 이야기를 해 준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는가. 이것이 예배다.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것이 예배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할 인간이 필요한 분이다. 영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자기를 형상화할 인간을 갈망하시겠는가.

카프카의 ‘변신’은 잠을 자고 나니까 내가 말도 못하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 버렸다는 이야기다. 식구들이 와서 보고 “이것이 무엇이나?”라며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 알아듣는데 말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식구들은 며칠간 그렇게 하더니 자기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며 처리할 방법을 의논한다.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내 표현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는가. 그때 누군가가 자기 마음을 알아서 표현해주면, 자기를 통역해 준다면 얼마나 감동하겠는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외국에 나가면 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알아들으니 말을 할 수 없다. 그 사람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나도 그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때 누가 통역을 해 주면 둘이 교통이 된다. 그 사람이 나에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라면, 통역해 줌으로 해서 일이 성사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정주영 회장이 돈을 빌리러 갔을 때 분명히 통역관이 같이 갔을 것이다. 그 사람이 통역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을 건설할 수 있는 돈을 빌려 온 것이다. 통역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 카프카의 ‘변신’에 나오는 이 괴물에게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이겠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 자신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마음이 있지만 표현을 못하는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다. 어느 형제와 통화를 하는데 암이 퍼져서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 도저히 말이 안나오는 것을 보니 안타까웠다. 그 형제도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이 안나오니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하나님은 갈망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하나님이 무슨 갈망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처럼 갈망이 크신 분이 없다. 우리는 혼이 있어서 말도 하고 생각도 하니까 아쉬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통역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은 갈망이 크시겠는가. 왜 돼먹지 않은 인간들을 따라다니며 기어코 구원하시려고 했겠는가. 우리 같은 인간이 왜 필요하겠는가. 중국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한두 사람 죽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인구가 15억이나 되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 천 명이 죽어도 아무렇지 않다. 나 같은 사람 하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얼마나 나 한 사람이 필요한지 모른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다. 그래서 나는 헛말을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표현해서 전달할 수 있을까! 전달만 한다면 얼마나 나에게 복인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래. 네가 꼭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신다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겠는가.

여러분이 한 마디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말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면 그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다. 이 영광을 맛보면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다른 영광은 못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너무 큰 영광을 받았으니까 남이 무시해도 상관이 없다.

우리는 형상이니까 이야기를 해봤자 헛소리만 하게 되어 있다. 우리는 꿩과리처럼 유식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본분과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귀중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헛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대제사장으로 위임받아서 후라이팬에 빵이나 굽고 앉았으면 되겠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위임을 받은 사람이 나가서 요리사나 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실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영과 실재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교회의 예배다. 교회의 예배는 새 사람의 예배다. 새 사람은 누군가? 연합된 사람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이 사람이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참 사람이

다. 이 사람은 구속된 사람이다. 구속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참 사람이고 참 사람만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와의 연합 안에서 그분과 교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그리스도는 통역자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한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처럼 보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 이유는 그분이 중보자이기 때문이다. 중보자니까 하나님과도 통하고 사람과도 통하는 것이다. 그분이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안에서 그분과 같이 형상이 필요할 때는 형상이 되고 흠이 필요할 때는 흠이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이것은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일이다.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썰렁해진다. 인생이 썰렁해진다. 맹물이 되고 만다. 그런데 그 맹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다시 잔칫집에 활기가 났다는 것이다. 인생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서 맹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어퍼하심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 주는 기적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이 무엇을 보여 주시는지는 모르고 ‘아,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하셨다. “너는 모르고 이 말을 하고 있지만 네가 이 말을 한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다.”라고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그때 참으로 알았다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라고 했겠는가. “나는 모른다.” 하고 도망쳤겠는가. 감동이 와서 자기도 모르고 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고 하셨다. 그런 말만 해도 복이 있다. 입을 가지고 탄소리를 할 텐데 그 말을 했으니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된다.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생명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길로 간다. 베드로는 결국 그 길로 갔다.

요즘 우리교회 중학교 학생들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것을 ‘중학생 아이들이니까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 인생이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

우리 동네에서 내 또래 친구들이 많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나뿐이었다. 무엇 때문에 교회에 갔는지 생각해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그 많은 친구들 중에 나 혼자만 교회에 갔을까? 시골에서는 친구 없이 혼자 교회 가기 어렵다. 따돌림받고 놀림받는다. 그런데 나는 혼자 교회에 갔어도 아무도 나를 따돌리지 않았다. 설립한 날부터 갔으니까 나는 그 교회의 터주대감이다. 어렸을 때 일이 헛 일이 아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신 것은 헛 일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리 입으로 한 번 하나님을 찬양해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른다. 교회에서 처음 온 사람이 그 입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나는 너무 기쁘다. 한 번 그렇게 진실을 고백했으면 언젠가는 또 교회에 오게 되어 있다.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으니까 ‘한 번 저러고 가면 뭐하냐?’라고 생각겠지만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한 번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한다. 배우를 데려다 놓고 해 보라고 해도 거짓말로 못한다. 다른 거짓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음대로 못한다. 이 말은 돈 받고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교회의 예배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의 찬양이다. 예수와 한 자리에 있게 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면 저절로 찬양이 된다. 이 사람은 연합된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 모든 축복을 주셨고 자기 자신까지 위임하셨다. 그리고 만민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게 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배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과 일대 일로 상대해서 무엇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다 엉터리다.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꿈을 꾸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상대하려면 60억이나 되는 인구를 어떻게 다 상대하시겠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 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을 상대하고 계신다.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세상에 왔다는 것이다. 이것이 포함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안에서다.

물은 흘러서 어디로 가는가? 태평양으로 가지 않는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다. 비가 오면 물이 어디 고이는가? 다 같은 자리에 고인다. 영똥한테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모인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는 다 축복이 오는 것이다. 이것은 교리가 아니다. 실제로 그러하다.

교회의 예배, 이것은 새 사람의 예배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예배가 되는데 새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다.

아담과 하와가 연합될 때 새 사람이 된다. 아담 혼자 있으면 옛 사람이다. 하와를 만날 때 아담은 새 사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기를 낳는다. 그것이 새 사람이다. 결혼한 사람이 새 사람이다. 신분이 달라진 것이다.

그래서 일이 달라져 버린다. 인생으로서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의 임무가 있다. 임무가 달라지는 것이다. 군대에 가면 집에 살 때와 목적이 다르니까 임무가 달라진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의 일이 생긴다. 억지로 사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하게 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저절로 된다. 영어를 못해도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를 하게 된다. 날마다 듣고 보니까 하게 된다. 생명이 같으면 같은 것을 하게 되는 것이다.

개구리와 도롱뇽은 우는 소리가 다른데 도롱뇽끼리 울면 다 같은 소리를 낸다. 처음에는 개구리인지 도롱뇽인지 몰랐는데 자세히 들어 보니 소리가 다르다. 조금 다르게 생겼다고 소리가 다른 것이다. 말하는 것이나 노래하는 것도 그 사람 생김새와 비슷하다. 노래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 입이 다르게 생겼다. 구조가 다르니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교회의 예배, 참된 예배,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올바른 관계다. 이 올바른 관계가 참된 예배다. 참된 예배가 발전해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렸다. 여러분이 못들어 본 이야기고 듣기 어려운 말이니까 잘 들어야 한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고 네피림의 예배가 있다. 예수의 예배, 교회의 예배는 그런 예배와 명백하게 다르다. 우리는 이 예배를 발전시켜야 한다. 연합된 생명의 찬양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은 너무 크시고 다양하신 분이다. 어느 한 사람만으로는 안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합창이라야 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박야 안된다. 비슷하게 될지 몰라도 아무리 혼자 영성을 개발하고 어찌고 해도 안된다. 그분 안에 포함된 것만 완전하다. 그분이 다 겪었기 때문이다. 전부 겪고 정제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따로 만들면 절대로 안된다. 내가 만든 것은 다 가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진실하다. 십자가에 못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그 인격 안에 진실이 있다.

그 진실 이외의 다른 것은 무엇이 붙어도 붙어 있다. 불교에서 자아를 찾으려고 수양을 하지만 평생 수양을 해도 순금이 안나온다. 죽지 않으면 순금이 안나온다.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어 보지 않으면 안나온다.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 속에서 나온다. 왼편 강도에게서 나오겠는가, 오른편 강도에게서 나오겠는가. 하나님 같은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죽었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형상이니까 완전한 것이다. 전기가 들어오면 등이 안보이고 등불이 보인다. 예수님을 볼 때 그렇게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박으니 완전하게 사람이다. 이것이 사람의 정체성이고 진실이다. 이 이상의 진실이 없다.

사람과 신이 합해진 것도 진실이 아니고 혼자 무엇을 해도 진실이 아니다.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될 때가 진실이고 흠으로 돌아설 때가 진실이다.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한 것도 아니다. 그분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이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신다. 우리도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저렇게 쓰실 수 있다. 형상으로 쓰실 수도 있고 흠으로 쓰실 수도 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하셨다. 밀이 번식할 때는 십자가에 죽은 그 모습이라야 되는 것이다. 거기서 번식을 하는 것이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데서는 번식이 안된다. 오병이오로 오천 명을 먹이는 데서는 번식이 안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는 것만 보여진 것이지 번식은 되지 않는다. 번식할 때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안에서 번식하는 것이다. 그 사람 안에는 만민이 포함된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데서는 아무도 포함될 수 없다. 그분 혼자고 독생자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고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는 만아들이 되셨다. 독생자가 만아들이 된 것이다. 바울의 말이 독생자라면 요한의 말은 만아들이다. 독생자가 만아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세계에 와 있는 것이다. 꿈도 꿀 틈이 없이 아주 완전하니까 여러분이 믿으면, 깨달으면 복이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확 달라진다. 용도가 달라

지고 갈 길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진다.

두려워하지 말자. 조금도 잘못될 일이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자. 어떤 사람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일방적이든 말든 이것이 진리다.